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영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윤상석 |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이향규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황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윤영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윤상석 | 무지개청소년센터 부소장

이향규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황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원

알기 쉬운 통일교육Ⅲ: 북한이탈주민용_수업지침서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 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 쇄: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I S B N 978-89-8479-733-8 93340

가 격 6,000원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목 차

I 장	(1차시) 남북분단과 전쟁	4
II 장	(2차시) 남북한 사회의 발전	13
III 장	(3차시) 한국사회의 다양성	26
IV 장	(4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_ 사회생활	33
V 장	(5차시) 민주적 의사소통 _ 가정생활	43
VI 장	(6차시)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53
부록	활동자료	61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주제 1. 남북분단과 전쟁

학습 목표 ○ 한반도 분단과정을 이해한다.
○ 6·25전쟁의 발발 원인, 전쟁의 시작,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 분단과 전쟁이 남북한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평화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교수 학습 강의식으로 진행하지만,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각 슬라이드별로 적절한 발문을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을 주입하거나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8장) 20분	1	전체 프로그램 표지	
	2	전체 구성 소개	❑ 분단의 출발점에 대한 수업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3	제목	
	4	남한과 북한의 사진	❑ 사진을 천천히 보여준다. ☞ 이때 시간을 충분히 주어, 학습자가 사진을 보고 감성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세 장의 슬라이드를 본 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5	오늘날 남한의 모습	- “사진을 보니 어떤 기분이 드세요?” ☞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간다. - “이 사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 이 사진들은 모두 “사람”들과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경우에도 답을 교수가 주지 말고 학습자가 생각해내도록 유도해본다.
	6	오늘날 북한의 모습	예를 들면 이렇게 묻는다. “이 사진은 남북한의 산과 들을 찍은 건가요?” 그러면 학습자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교수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사람 사는 모습”이라는 답변을 할 수 있다.

도입 (8장) 20분	7	남한과 북한 사회의 비슷한 점, 다른 점	<p>☑ 먼저 빈칸을 주어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때 시간이 충분하면 학습자를 4명 내외로 모둠을 만들게 하고 이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때 이 표를 인쇄물로 주고 함께 빈칸을 적어보도록 한다. 학습자의 의견을 듣고 나서 슬라이드를 클릭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의 예를 보여준다.</p> <p>☞ 학습자들이 제시한 예가 더 풍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때 이들을 격려한다.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강점이라는 점을 강조해 준다.</p>
	8	오늘 다룰 주제 소개	<p>☑ 오늘 수업에서 다룰 주제는 오늘날 남북한 문제의 시발점이 된 분단과 남북한을 더욱 적대적 상태로 만들어 놓은 전쟁에 대해 다룬다는 점을 알려준다. 7번 슬라이드(현재의 남북한)와 연결하여, 오늘날 남북한주민이 느끼는 다른 점은 분단 후 약 70년간 서서히 만들어진 것이며, 한반도 분단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은 남북한 상호이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p>
전개 (18장) 60분	9	일제 식민지배에서 해방	<p>☑ 먼저 해방과 분단과정에 대해 다룬다.</p> <p>☞ 다음 안에 기술된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서울: 비상출판사, 2013))에 서술된 분단과정에 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강의자가 참조할 수 있다.</p>
	10	분단비극의 시작 (1)	<p>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은 한반도에 ‘해방’의 기쁨을 가져온 동시에, 한반도 ‘분단’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독립이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일본 식민지 조선에 대한 처리는 승전국들(연합국)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연합국은 한반도를 전승국의 일원이 아닌 패전국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였다. 1945년 8월 11일에 한반도에 들어온 소련군은 빠르게 북부 지역을 점령하여 8월 26일에 평양에 진주하였다. 이에 당황한 미국 측은 소련의 한반도 단독 점령을 막기 위해 38도선을 기준으로 한 분할점령을 소련에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들어와 관리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연합국회담에서 한반도의 독립논의는 카이로회담과 알타이회담</p>
	11	분단비극의 시작 (2)	

전개 (18장) 60분	12	분단과정 (1)	<p>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반도의 독립을 허용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독립방안이 논의된 것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였다.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외상들이 모여 한반도에 임시민주정부 수립,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최고 5년간 신탁통치 실시 등을 결정하였다. 이 ‘신탁통치안’은 이후 한반도의 좌우대립의 불씨가 되었다.</p> <p>☞ 이때 신탁통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학습자들에게 당시 여러분이라면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해 물을 수 있다.</p>
	13	분단과정 (2)	<p>신탁통치안 발표 후의 좌우대립: 신탁통치안은 즉각 독립을 바라던 민족을 크게 실망시켰다. 김구, 이승만 등 우익세력은 즉각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좌익세력은 초기에는 신탁통치 반대운동을 벌였으나 후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의 본질이 신탁통치보다 임시정부수립에 무게가 있다고 보고 회의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리하여 우익의 ‘신탁통치반대’ 입장(반탁)과 좌익의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 총체적 지지’ 입장(찬탁)이 충돌하면서 좌익과 우익이 극심하게 대립하였다. 1946년에 한반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부를 세우려던 미국과 소련은 참여단체 범위를 놓고 대립하였다.(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을 반대하는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한편, 미국은 원하는 모든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미소공동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결렬되었고,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이관하였다. 유엔에서는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에 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1947.11). 그러나 이남보다 인구가 적었던 이북에서 이를 거부하여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에 유엔은 가능한 지역의 선거실시를 결정하였다. 김구 등은 이남에서 선거를 통해 정부가 수립되면 이북 역시 정부를 수립할 것이고 이는 결국 남북분단을 초래할 것이라고 여겨 ‘남북협상’을 제안하였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남북지도자회의가 열렸으나 당시 형성된 냉전체제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1948년 8월 15일 한반도 이남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곧이어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p>

전개 (18장) 60분	13	분단과정 (2)	☞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구성한 것은 1945년 9월 9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이에 앞서 1946년 2월 8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발족하여 행정조직을 갖추고 북한지역에 토지개혁 등 사회주의개혁을 단행하였다. 1947년 2월 20일에는 행정부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의기구인 ‘북조선인민회의’도 구성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실질적인 정부 수립이 이루어졌다.
	14	분단의 원인, 국제적 측면	<p>☑ 한반도 분단이 한민족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정치 속에서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분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p> <p>☑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리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마주치는 곳이고, 정치적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소련 등 강대국 세력 대립의 각축장이다. 한반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과 소련의 냉전체제 시작이라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분단되었다.</p>
	15	분단의 원인, 국내적 측면	☑ 해방 후 민족지도자의 이념적 대립이 민족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역량을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외세에 의한 분단을 막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16	잠깐, 생각해 봅시다.	☑ 분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앞으로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해 토론한다. 학습자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강사가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강사가 생각하는 교훈(PPT)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17	전쟁	☑ 6·25전쟁에 대해 다룬다.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집단적으로 중외의 기억을 갖게 만든 일대사건이다.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되었지만, 우리처럼 대규모 내전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도 상기시킬 수 있다. 전쟁의 기억은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점일 수도 있다.
	18	전쟁에 대한 다른 기억	<p>☑ 남한과 북한은 전쟁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그 국민들에게 남과 북의 공식적인 해석을 가르쳐왔다. PPT 내용을 보여주기 전에 강사가 먼저 질문한다.</p> <p>- “여러분은 북한에 있을 때 전쟁을 누가 일으켰다고 배웠나요?”</p> <p>☞ 이때 “남침”과 “북침”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 준다. “남침”은 북한인민군이 남한을 침략한 것이고, “북침”은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한 것이다.</p>

	18	전쟁에 대한 다른 기억	<p>❑ 학생들의 답변을 유도한다. 다음으로 또 질문한다.</p> <p>☞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다고 배웠나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한에서는 7월 27일을 무슨 날이라고 부르나요?” (매년 7월 27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휴일이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에서 휴전 협정이 이루어진 날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p> <p>❑ 그런 후에 전쟁의 시작과 끝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한다. 전쟁은 38도선 부근에서 이루어진 군사적 긴장과 국지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북한의 대대적인 남침에 의해 발발하였다. 전쟁은 현재 ‘휴전’상태이고, 이는 누구의 승리도 아니라는 의미이다.</p>
전개 (18장) 60분	19	전쟁의 배경	<p>❑ 다음 █ 안에 기술된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서울: 비상출판사, 2013))에 서술된 분단과정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강의자가 참조할 수 있다.</p> <p>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좌우익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회가 여전히 불안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좌익세력이 개입한 제주 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등이 벌어져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이후 일부 좌익세력은 산으로 들어가 반란군의 게릴라 활동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좌익세력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남한 내의 사회 혼란을 조장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도 이러한 좌우대립을 부추겼다. 냉전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은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시킨다고 선언하였다. 반면 소련은 북한에 많은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여 군사력을 강화시켜주었고,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은 중국의용군 출신의 팔로군을 북한군에 편입시켜주었다. 한반도의 국내외적 정세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p>
	20	전쟁의 시작과 전개 (1)	<p>❑ 이러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에 의한 전면적 남침이 단행되었다. 강의 시간이 충분하면 전투 자료 동영상을 보여준다. 이 동영상은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의 동영상 자료에 링크되어 있다.(강의실 내 인터넷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동영상은 전쟁 발발 영상이고 총 5분 분량이다.</p>

전개
(18장)

60분

20

전쟁의 시작과
전개 (1)

☞ 6·25전쟁이 북한군에 의한 남침이라는 사실은 1993년 8월 6일에 구 소련외무부 비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보다 분명해졌다.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통일 방침을 세우고 스탈린을 설득, 1950년 3~4월에 최종적 동의를 받아냈으며 그해 5월에는 북경을 방문, 모택동(毛澤東)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비밀문서 내용에 대해 소개한 보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毛澤東) 3인의 주도면밀한 공모작품 북한지도부, 3단계 무력통일전략구사... 최종단계서 군사행동 중국, 병력 1백만 외에 민간인 1백만 동원 군수물자운반

(모스크바=연합(聯合)) 金興植특파원 =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개괄적 전모를 밝히는 구 소련 외무부 비밀문서가 6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소련 외무부가 지난 66년 8월10일자로 공산당중앙위원회에 제출한 '1950~53년의 한국전쟁과 정전협상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전은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毛澤東) 3인에 의해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지식층이 주로 구독하는 일간 쿠란티지에 내용이 상세히 공개된 이 문서는 ▲전쟁직전 상황과 전투과정 ▲중국군 참전 ▲유엔과 미국의 개입 ▲정전협상 등 4개 항목으로 작성됐으며 당시 극히 한정된 고위지도자들에게만 배포됐다.

이 문서에 따르면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통일 방침을 세우고 스탈린을 설득, 1950년 3~4월에 최종적 동의를 받아냈으며 그해 5월에는 북경을 방문, 모택동(毛澤東)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지도부는 당시 3단계를 거쳐 무력통일목적을 달성코자 했는데 1단계는 전쟁준비를 면밀히 추진, 38도선에 군사력을 집중 배치하고 2단계에서는 한반도 통일방안을 남한에 제의한 후 3단계에서 남한이 거부하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고 이 문서는 지적했다.

중국개입부문과 관련, 모택동(毛澤東)은 50년 5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중국군 내 한인들로 편성된 1개 사단을 북한에 파견하고 식료품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개 (18장) 60분	20	전쟁의 시작과 전개 (1)	<p>모택동(毛澤東)은 특히 김일성에게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만일 남한이 일본(日本)의 군사원조를 요청하는 경우 중국군 1개 군을 중국(中國)-북한 접경지역에 배치기로 약속했다.</p> <p>이 문서는 또한 개전당시 남·북한군 규모를 열거하고 있는데 북한군이 병력에서 1:2, 대포 1:2, 기관총 1:7, 자동소총 1:13, 탱크 1:6.5, 비행기 1:6등으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고 지적했다.</p> <p>이 문서는 북한군 작전계획을 인용, 북한군이 1주야당 15~20km씩 진격하고 개전 후 22일내지 27일 기간에 군사행동을 완료기로 되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p> <p>이 문서는 또 중국군 지원규모와 관련, 한국전쟁에 참전한 중국지원군 총인원은 1백만 명에 달했으며 거의 같은 수의 중국인들이 군수물자 운반에 동원됐다고 밝혔다.</p> <p>러시아 학자들은 소련외무부의 이 문서야말로 한국전쟁이 북한 측에 의해 준비, 발발됐음을 입증하고 있으며 더구나 스탈린과 모택동(毛澤東)이 김일성의 남침을 '축복'했던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p> <p>중국은 지난 7월 27일 한국전 정전 40주년을 맞아 북한에 대규모 당·정고위사절단을 파견하면서 한국전쟁이 남한과 미국의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었다고 강변한 바 있다.</p> <p>- 『연합뉴스』, 1993년 8월 6일자 신문기사</p> <p>- 북한군의 남침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자료는 다음 홈페이지 (국방부 6·25전쟁 제60주년 사업단 블로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p> <p>〈http://koreanwar60.tistory.com/670?srchid=IIMkYp7K500〉</p>
	21	전쟁의 시작과 전개 (2)	<p>☑ 전쟁은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전쟁개시 6개월 동안 전세는 엇치락뒤치락 하였고, 휴전선 부근에서의 2년이 넘는 전투가 계속되다가 휴전되었다. 한반도 안에서의 내전이었지만, 유엔군과 중국군의 참전으로 세계전쟁의 양상을 띠었다.</p>

전개 (18장) 60분	22	전쟁이 남긴 것 (1)	<p>❑ 다음 이야기를 들려준다.</p> <p>“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 어머니! 어쩌면 오늘 죽을지 모릅니다.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웅달쌈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켜고 싶습니다.” …</p> <p>한 소년병이 어머니에게 쓴 이 편지는 결국 그가 죽고 나서야 전달이 되었다. 광복 이후 남과 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은 결국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게 되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였고, 남북한은 많은 상처를 안게 되었다.</p> <p>-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 (서울: 비상출판사, p. 324))</p>
	23	전쟁이 남긴 것 (2)	<p>❑ 22번 슬라이드에서는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보여준다.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 면에서 북한 측의 피해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전쟁으로 군인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전쟁 이후에는 남한과 북한 모두 전후복구가 가장 큰 과제가 되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에 대해 슬라이드 23, 24, 25번을 천천히 보여준다.</p>
	24	전쟁이 남긴 것 (3)	
	25	전쟁이 남긴 것 (4)	
	26	전쟁의 기억	<p>❑ 6·25전쟁에 대한 사람들의 집단적 기억은 노래로 표현되었다.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노래 세 편을 소개한다.</p> <p>☞ 강의 시간이 부족하면 26번 슬라이드는 지나쳐도 좋다.</p> <p>❑ 스피커 표시를 클릭하면 국가기록원의 6·25전쟁 교육콘텐츠에 연결된다. 상단 메뉴에 6·25노래, 전우야 잘 자라, 굳세어라 금순아, 이별의 부산정거장 등이 표시되어 있다. 6·25노래를 클릭하면 노래를 들을 수 있다. 6·25노래는 북한을 ‘조국의 원수’, ‘불의의 역도’ 등 중의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굳세어라 금순아는 흥남철수(중국군의 참전으로 유엔군과 국군이 흥남부두를 통해 피난민과 함께 철수함, 1950.12)에서 잃어버린 여동생을 그리는 노래이다. 피난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다.(충분한 시간이 되면 흥남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p> <p>〈http://www.youtube.com/watch?v=tq0LkekjhG8〉</p> <p>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부산에서 피난생활을 마치고 환도열차를 타는 사람들과 남아있는 사람들 간의 이별에 대한 노래이다.</p>

정리 (2장) 10분	27	잠깐, 생각해 봅시다	<p>❑ 오늘 수업을 정리하면서 수업 시작 전에 제시한 6·25전쟁에 대한 남북한의 공식적인 해석의 차이점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한다. 북한에서는 ‘조국해방전쟁’ 남한에서는 ‘6·25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에 의해 개시되었고, 세계전쟁으로 비화되어 지금도 여전히 휴전상태라는 것, 그리고 남북한에 모두 많은 비극을 남겼다는 점을 강조한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가족이 경험한 분단과 전쟁의 기억을 서로 나눈다. 그리고 앞으로 전쟁의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을 서로 나눈다.</p>
	28	정리하기	<p>❑ 오늘 다룬 여러 내용을 요점 정리한다. 클릭할 때마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으므로, 급하게 모두 보여주지 말고 찬찬히 하나씩 정리하듯이 보여준다.</p>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서울: 비상출판사, 2013. ○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3. ○ 전쟁기념관. “전투자료 동영상.” <https://www.warmemo.or.kr/new/sub06/sub06_05.jsp?txtSearch=all&txtSearchText=&mode=view&noteid=8369&cpge=1>. ○ 국가기록원. “노래로 배우는 한국현대사 - 한국전쟁.” <http://theme.archives.go.kr/next/education2009/koreanWar.do>. ○ 국방TV. “북한의 침략 전쟁 6·25 크리스마스의 기적 흥남철수작전.” <http://www.youtube.com/watch?v=tq0LkekjhG8>. ○ 국방부. “6·25전쟁 제60주년 사업단이 제시하는 북한의 남침 증거.” <http://koreanwar60.tistory.com/670?srchid=IIMkYp7K500>.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주제 2. 남북한 사회의 발전

학습 목표
 ○ 6·25전쟁 후 60년간 한국사회의 변화과정을 이해한다.
 ○ 남한 사회가 점차 변화 발전되어온 과정을 이해하고, 남북한 분단 이후 공유되지 않은 삶의 경험을 나눈다.

교수 학습
 6·25전쟁 당시 헤어진 두 형제(박용성 씨와 박룡철 씨)가 2000년에 한국에서 다시 만나는 스토리를 한 축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 분단 이후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시대적 역사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개인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당시 시대상이 나오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고, 시대는 10년 혹은 20년 단위로 구분하여 정리되어 있다. 개인의 이야기와 역사서술이 계속 교차하여 제시되어, 학습자가 혼란을 경험할 수도 있으므로, 시대구분이 바뀔 때마다, “그럼 다시 용성, 룡철 씨 형제의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와 같이 강사가 전체 맥락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8장) 20분	1	전체 프로그램 표지	
	2	전체 구성 소개	
	3	제목	
	4	시작하며: 시간여행	<p>❑ 이 사진이 어느 시대쯤인지,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묻는다.</p> <p>❑ 3, 4번 사진은 쉽게 판별하겠지만, 1, 2번 사진은 자세히 보지 않는 한 잘 모를 수 있다.</p> <p>☞ 사진 1: 남한의 새마을 운동 사진(농촌주택개량) 사진 2: 북한의 천리마 운동 사진(농촌 관개시설 건설) 사진 3: 현재 서울의 남대문 주변 야경 사진 4: 현재 평양의 사진(만수대 참배하는 주민 모습)</p> <p>❑ 천리마 운동과 만수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북한 지식 사전을 참고할 수 있다. (『북한 지식 사전』(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p>

도입 (8장)	4	<p>시작하며: 시간여행</p>	<p><천리마 운동>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를 탄 기세로 사회주의 건설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의미로 사용되는 사회주의 노력경쟁운동의 하나이다. 처음에는 사회주의 생산경쟁운동 형태로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혁명을 촉진하는 강력한 추동력,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이 되었다.</p> <p><만수대> 평양에는 만수대 대기념비, 만수대에술극장, 만수대에술단, 만수대창작사 등 ‘만수대’란 이름이 붙은 기관이나 건축물이 많다. 만수대란 평양시의 중심부 대동강 오른쪽 연안에 위치해 있는 언덕이다. 해발 60m이며, 모란봉의 남쪽 능선에 연결되어 솟아 있다. 여기에 김일성 동상과 혁명박물관이 소재해 있어 북한에서는 신성시하는 지역이다.</p> <p>☑ 1970년대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삶의 수준이 비슷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p>
	5	<p>함께 생각해 볼 내용</p>	<p>☑ 본 수업을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문제를 공유한다.</p>
	6	<p>한국사회의 주요사건</p>	<p>☑ 클릭하여 모든 내용을 화면에 보여준 후, 설명한다.</p> <p>☑ 해방 이후 한국현대사의 주요사건, 집권한 대통령, 시대적 과업을 중심으로 정리한다.</p> <p>☑ 특히 시기마다 시대적 과업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p> <p>☑ 마찬가지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보여준다.</p> <p>☑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직면했던 시대적 과업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학습자의 의견을 묻는다.</p> <p>☑ 예컨대 전후복구, 경제건설 등의 답이 나올 수 있다.</p> <p>☑ 통일은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p> <p>☑ 북한 사회의 주요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북한 지식 사전을 참고할 수 있다.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p>
7	<p>북한 사회의 주요사건</p>	<p><청산리정신> 김일성이 1959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된 새 환경에 맞게 사업체제와</p>	

도입
(8장)

20분

7

북한 사회의
주요사건

사업방법을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듬해인 1960년 2월 평안남도 강서군(현 남포시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러면서 이를 일반화하도록 지시한 데서 비롯됐다. 즉, ‘청산리정신’이라는 명칭은 청산리에서 처음 구체화됐다 하여 붙여졌다.

북한은 청산리정신의 기본 내용으로 ① 나라의 모든 살림살이와 인민의 생활에 대해 완전히 책임지는 원칙에서 당적·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 ②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돌레에 묶어 세위 공산주의 사회까지 이끌어가는 원칙에서 당적·국가적 지도를 실현하는 것, ③ 혁명과 건설에 대한 지도에서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선군정치〉

김정일 정권의 출범을 계기로 등장한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다.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군이 중심이 되는 정치방식이다.

〈주체사상〉

북한의 통치이념으로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김일성의 공산혁명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체계 전반을 ‘김일성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등 사회 모든 분야를 규정·지배하고 있다.

〈유일사상체계〉

수령의 혁명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일 것을 요구하는 수령의 사상체계이자 영도체계이다.

〈자립적민족경제〉

생산의 인적·물적 요소들을 자체로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생산·소비적 연계가 완결되어 독자적으로 재생산을 실현해나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은 “남에게 예측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한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8장) 20분	8	한 가족의 이야기	<p>❑ 전쟁을 통해 한반도에는 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났다. 통일 은 남과 북, 다른 사회에서 살았던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과 유사하다. 이 강의에서는 전쟁 때 헤어져서 남과 북에서 각각 살았던 형제의 이야기를 한 축으로 하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일을 위해 두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각자 살아온 세월에 대한 이해이다. 통일교육을 통해, 남한사람들은 분단 이후 북한에서 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을 이해하고, 북한사람들은 남한사람들이 살아온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강의에는 그런 의미에서 북한사람들에게 6·25전쟁 후 60년 동안 한국사회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마치 50년 만에 형을 다시 만난 동생이 형에게 그 동안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과 비슷하다.</p>
전개 (21장) 60분	9	1950년대 박용성 씨의 삶 (1)	<p>❑ 박용성 씨의 삶을 이야기해준다. 전쟁 후의 가난한 시절에 대해 말한다. 첫 번째 사진의 꿀꿀이죽을 설명하면서, ‘부대 찌개’의 기원에 대해 알려줄 수도 있다. 1950년대는 박용성 씨가 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가는 과정이다.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4·19혁명은 1950년대 까지 시대를 마무리 짓는 일대 사건이었고, 여기에는 중고등 학생도 많이 참여했다는 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p>
	10	1950년대 박용성 씨의 삶 (2)	
	11	1950년대 박용성 씨의 삶 (3)	<p>❑ 박용철 씨의 삶은 학습자 자신 혹은 부모님 세대의 삶일 수 있다고 말하고, 형의 삶과 비교하여 생각해보라고 한다.</p> <p>❑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박용성씨 삶의 역사적 배경이 된 1950년대 한국사회에 대해 알아보자.”고 하여 다음 슬라이드와 연계한다.</p>
	12	1950년대 한국: 해외원조	<p>❑ 1950년대는 남한과 북한 모두 전후복구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남한에는 대규모 원조물자가 들어왔다. 주로 미국에서 무상원조하였고, 1962년 이후 차관원조로 전환되었다. 한국경제를 잿더미에서 다시 일으킨 동력이 되었다. 한국은 2012년 다른 나라에 원조를 주는 국가그룹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함으로써,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p>

전개
(21장)

60분

13

1950년대
한국: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 ❖ 사진설명: 사진1, 2 - 거리로 나온 시위대
사진3 - 대통령 하야 후 사택으로 이동하는 이승만 대통령 일행
- ☞ 다음 [] 안의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 (서울: (주)미래엔, 2013))에 4·19혁명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내용을 옮긴 것이다. 강의자가 참조할 수 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2대 대통령이 되었고,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3선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국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정족수 1명이 부족하자 부결을 선포했던 국회의장은 이를 후 사사오입(반올림)을 적용하여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다(1954년). 사사오입개헌으로 민주주의의 원칙은 크게 손상되었다. 이승만은 다시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후보 조병옥의 사망으로 단독후보가 된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시되었다. 그러나 고령인 이승만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야 했기 때문에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 깡패까지 동원하여 이기봉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 당일(1960.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마산에서는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공산주의자에 의한 폭력시위라고 발표했지만 반정부시위는 서울과 부산으로 확대되었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주도한 내무부 장관이 사임하면서 사태는 잠시 진정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시위진압경찰에 의해 사망한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자(4.11) 격렬한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4월 18일 서울에서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대학생들이 정치깡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다음날인 4월 19일 중학생과 대학생을 비롯하여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부정선거와 이승만 독재를 규탄하며 대통령 집무실인 경무대 앞까지 진출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해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그러나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

전개 (21장) 60분	13	1950년대 한국: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p>고 군대까지 동원하였지만 저항은 계속되었다. 대학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시위에 참여하자, 시민과 학생은 물론 초등학교생들까지도 시위에 가세하였다. 결국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4,26)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미국으로 망명하였다(5,29).</p> <p>4·19혁명은 고등학생들이 앞장서고 대학생과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아시아 최초의 민주혁명이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냈다는 긍지는 이후 계속된 민주화운동의 주춧돌이 되었다.</p>
	14	1960 ~ 1970년대 박용성 씨의 삶	<p>☑ 박용성 씨의 삶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모든 이들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다.</p> <p>☞ 사진 1: 새마을운동 / 사진 2: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p>
	15	1960 ~ 1970년대 박룡철 씨의 삶	<p>☑ 박룡철 씨도 북한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다. 1970년대는 통일에 대한 기대도 높았다.</p> <p>☞ 사진 1: 1970년대 북한의 제철소 사진 (룡철 씨가 이곳에서 일한 것처럼 표현)</p> <p>사진 2: 7·4남북공동성명(1972년)</p>
	16	1960 ~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등장	<p>☑ 1960년대와 1970년대 20년간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p> <p>☞ 사진 1: 5·16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소장과 군부 사진 2: 제5대 대통령 취임식</p> <p>※ 5·16군사정변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서울: (주)미래엔, 2013))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강의 시 참조할 수 있다.</p> <p>4·19혁명 이후 구성된 과도정부는 새 헌법 제정에 나서 내각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새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윤보선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에 지명함으로써 장면 내각이 출범하였다(1960). 4·19혁명 직후 억눌렸던 사회 각층의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학원 민주</p>

전개 (21장) 60분	16	1960 ~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등장	<p>화운동, 노동운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장면 내각은 출범 직후 시정 방침을 발표하고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약속했던 부정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한편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평화통일운동이 분출하였다.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와 같은 구호를 내세우며 남북학 생회담을 주장하였고, 혁신계 정당과 사회단체들도 남북 정당과 사회단체의 정치협상을 주장하였다. 장면 내각은 공무원 공개 채용제도와 경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 등을 단행하였고, 군비 축소를 통한 경제개발계획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집권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분열, 대립하였다. 이를 틈타 평화통일운동과 군비 축소 계획에 불만을 품은 일부 군인이 5·16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다(1961).</p> <p>군사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대통령중심제, 단원제 국회 구성을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변 당시 민간에 정권 이양을 약속했던 박정희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국민투표를 통해 제 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군복을 벗은 군사정부가 출범하였다(1963).</p>
	17	1960 ~ 1970년대 주요사건	<p>❑ 이 20년간 한국사회에는 많은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개발이었다.</p>
	18	1960 ~ 1970년대 경제성장	<p>❑ 이 슬라이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한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설명이다.</p> <p>❑ 1963년에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시작되었다. 서독으로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임금을 고국으로 송금하였고, 이는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다.</p> <p>❑ 강의 시간이 충분하면, 한국이 외국으로 노동인력 송출을 했던 1960년대에 비해, 1990년대 들어서는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음을 상기시킨다. 이때 시간이 충분하면 다음 영상을 보는 것도 좋다.</p>

<p>전개 (21장)</p> <p>60분</p>	<p>18</p>	<p>1960 ~ 1970년대 경제성장</p>	<p>☞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식채널e - 사람들이 왔다.” <http://www.youtube.com/watch?v=fUEU14EaQro>.</p> <p>☑ 새마을운동에 대한 설명에 이어 새마을운동노래를 들려 준다. 스피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가기록원의 ‘노래로 배우는 현대사 잘살아보세(경제건설)’ 웹사이트와 연결된다. 새마을운동노래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작사·작곡한 것이다. 시간이 충분하면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하단의 토론해볼 문제 중 한두 개를 함께 토론하는 것도 좋다.</p> <p>☑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한국경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고도성장이 낳은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다.</p> <p>☑ 다음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 (서울: (주)미래엔, 2013))에 기술된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의 내용이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박정희 정부는 장면 정부가 수립한 경제개발 계획에 기초하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을 추진하였다. 우리 자본으로 시멘트와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자립경제를 이루려고 하였지만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에 외자를 유치하고 의류, 신발, 합판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에서는 경부고속국도 등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경공업 및 비료·시멘트·정유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에 주력하였다. 1960년대 말, 국제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출 감소, 외채 누적, 사채 상환 부담 증가로 기업은 부도 위기에 직면하였다. 정부는 대기업에게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마산, 창원 등지에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하여 외국 기업을 유치하였다. 그 결과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국민들의 금융부담은 늘어났고,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렸다.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1~1981년)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주력하여 포항 제철(1973년)을 시작으로 경상도 해안지역에 대규모 조선, 자동차, 정유, 전자단지가 들어섰다. 그 결과 농어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1970년대 말에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앞질렀다.</p> </div>
----------------------------	-----------	---------------------------	---

<p>전개 (21장)</p>	<p>18</p>	<p>1960 ~ 1970년대 경제성장</p>	<p>한국이 1960~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경제 개발의 의지가 강한 정부와 외자를 도입하여 수출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79년 1인당 국민소득은 1962년에 비하여 20배나 성장하였다.</p> <p>그러나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 시달렸고, 빈부의 차도 커졌다. 영호남 간 개발의 불균등과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확대도 문제였다. 한편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은 재벌중심의 한국적 기업문화를 형성하였다. 수출을 주도하는 몇몇 대기업이 정부의 특혜로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서로 다른 업종에까지 진출하여 재벌이 되었다. 이때 기업이 정부의 혜택을 얻어내기 위한 부적절한 거래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정경유착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으로 내수보다 수출입의 비중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심화되었다.</p>
<p>60분</p>	<p>19</p>	<p>1960 ~ 1970년대 유신체제와 민주주의의 후퇴</p>	<p>❏ 유신체제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 (서울: (주)미래엔, 2013))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강사가 참조할 수 있다.</p> <p>박정희 정부는 1970년대 들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미국이 닉슨독트린 선언 후 북한과 화해할 것을 권유하였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도 커졌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경제 난국 극복과 평화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1972). 유신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 6년으로 중임제한이 없으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다. 또 법관인사권, 국회 해산권을 비롯하여 국민의 기본권마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가졌다. 이와 같이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실현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여 민주주의를 기만한 권위주의적 독재체제였다. 유신헌법에 따라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99.92%의 득표율로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장기 독재를 지속하였다.</p>

전개 (21장) 60분	20	1960 ~ 1970년대 개인의 자유 통제	<p>❑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개인의 자유는 크게 통제되었다. 이 시기의 남한생활과 북한사람들이 경험한 북한에서의 일상생활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불과 30~40년 전만해도 남북한 간의 문화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다.</p> <p>❑ 혼분식운동의 스피커 아이콘을 클릭하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와 연동된다.</p>
	21	1980 ~ 1990년대 박용성 씨의 삶	<p>❑ 다시 박용성 씨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자녀가 장성한 시기를 본다. 자녀의 삶을 통해 1980년대는 민주화의 시대였다는 점,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경제위기가 다시 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이 한국 국민들에게는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언급한다.</p>
	22	1980 ~ 1990년대 박용철 씨의 삶	<p>❑ 박용철 씨의 1990년대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학습자들에게 그들의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어떠했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다.</p>
	23	1980 ~ 1990년대 5·18민주화 운동	<p>❑ 1980년대를 연 사건은 5·18민주화운동이다.</p> <p>❑ 슬라이드에 표시된 5·18 민주유공자 등록자 통계는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이다.</p> <p>☞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서울: (주)미래엔, 2013))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강사가 참조할 수 있다.</p> <p>10·26사태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 온 국무총리 최규하는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고, 전두환 소장을 비롯한 신군부는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다(12·12사태, 1979.12.12). 이에 실망한 국민들을 1980년 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유신 철폐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의 시위대가 가진 해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는 5월 18일부터 광주 시민의 민주화 시위를 폭력적으로 탄압하였다. 급파된 공수 부대는 폭력을 휘두르며 학생과 시</p>

	23	1980 ~ 1990년대 5·18민주화 운동	<p>민을 대거 체포하였고, 언론을 장악한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붙였다. 시위대는 전남도청 앞에 집결하여 계엄군과 대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시위는 광주 주변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일부 시민들은 무기를 탈취하여 저항하였다. 하지만 곧 시민 수습 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무기를 회수하고 정부와 평화적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5.22). 그러나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까지 동원하여 시민군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전남도청을 장악하였다(5.27).</p> <p>5·18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탈취에 저항한 민주화운동으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미운동이 시작되었다. 시위대 진압을 위한 신군부의 병력 동원이 미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p>
전개 (21장)	24	1980 ~ 1990년대 주요사건	<p>1960~1970년대가 경제발전의 시기였다면, 1980~1990년대는 민주화의 시기였다.</p>
60분	25	1980 ~ 1990년대 민주화운동	<p>☞ 사진 1: 고문은폐 폭로(1987.6.10) 사진 2: 6월 항쟁</p> <p>※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 (서울: (주)미래엔, 2013))에 기술된 6월 민주항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사가 참조할 수 있다.</p> <p>5·18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전두환 위원장은 국가 기강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집권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면서 국민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가운데, 정치인들의 활동을 통제하였고, 언론을 통제함으로써 장악하였다. 집권준비를 마친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1980). 그리고 영구 집권이 가능했던 유신헌법을 고쳐 선거인단이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출하는 개헌을 단행하였고, 이 헌법에 의해 전두환은 다시 제12대</p>

전개 (21장) 60분	25	1980 ~ 1990년대 민주화운동	<p>대통령에 당선되었다(1981.2). 전두환 정부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두발 교복 자율화, 프로야구단 창단 등 유화정책을 폈으나, 친인척 비리, 정권 장악 과정의 불법성과 비도덕성으로 국민의 저항에 시달렸다.</p> <p>대학생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과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민주인사들은 민주화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1984), 대학생들은 전국학생연합을 결성하여(1985) 민주화 투쟁의 힘을 결집시켰다. 대통령직선제 공약을 내건 신한민주당은 창당 25일 만에 후보 50명 전원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킨 데 이어 대통령직선제를 위한 1천만 명 개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p> <p>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자 정부는 이를 강경 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가혹한 고문으로 대학생 박종철이 사망하자, 정부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금지하는 4·13호헌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사망했음이 밝혀졌다. 분노한 학생과 시민은 시위로 항의하였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직선제 개헌과 고문 살인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였다. 국민운동본부는 대대적인 민주항쟁을 선언하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다(1987.6.10). 이를 계기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연일 계속되었다. 결국 전두환 정부는 차기 대통령 후보로 내정된 노태우를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다는 6·29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민주항쟁은 학생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참여한 평화적 시위로, 군사 독재를 끝내고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p>
	26	1980 ~ 1990년대 금융위기와 IMF시대	<p>❑ 외환위기에 대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한국사』(서울: (주)미래엔, 2013))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강사가 참조할 수 있다.</p>

전개 (21장) 60분	26	1980 ~ 1990년대 금융위기와 IMF시대	1990년대에 김영삼 정부는 세계화를 목표로 공기업의 민영화, 금융업 규제 완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그러나 한보 사태를 계기로 국내 단기 자본이 이탈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외환위기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조기 상환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량 해고로 인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였고, 일부 은행과 대기업이 해외에 매각되었다.
	27	2000년대 이후 박용철 씨 이야기	❑ 2000년에 박용철 씨와 박용성 씨가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28	2000년대 이후 박용성 씨 이야기	
	29	2000년대 이후 한국	❑ 2000년대 한국의 특징 가운데 ‘새로운 사회구성원의 증가’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등을 의미한다. ❑ 사진 가운데 두 번째는 양극화를 설명하는 것으로, 서울 역의 노숙자 사진이다.
정리 (2장) 10분	30	마무리하며	❑ ‘마무리하며’와 ‘정리하기’는 한 문장씩 천천히 보여주고, 천천히 내용을 읽음으로써 오늘 학습한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31	정리하기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한국사』, 서울: (주)미래엔,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 지식 사전』,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 국가기록원, “노래로 배우는 현대사 - 잘살아보세(경제건설).” 〈http://theme.archives.go.kr/next/education2009/farmReclamation.do〉. ○ 국가기록원, “노래로 배우는 현대사 - 미곡자급정책.” 〈http://theme.archives.go.kr/next/education2009/riceSelfSupply.do〉. ○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식채널e - 사람들이 왔다.” 〈http://www.youtube.com/watch?v=fUEU14EaQro〉.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주제 3. 한국사회의 다양성

○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를 이해한다.

학습 ○ ‘문화’와 ‘다문화’의 뜻에 대해 이해한다.

목표 ○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가치와 태도를 익힌다.

○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과 북한 주민만이 아닌, 나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인식시킨다.

교수 학습 강의식으로 진행하지만,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각 슬라이드별로 적절한 발문을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을 주입하거나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6장) 20분	1	전체 프로그램 표지	
	2	전체 구성 소개	<p>❑ 한국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강의와 학습목표를 소개한다.</p> <p>☞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p>
	3	제목	
	4	경험 나누기	<p>❑ 각 질문을 읽고 답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p> <p>❑ 답한 내용을 칠판에 적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고 자신도 생각해보도록 한다.</p>
	5	등장인물 소개 (1)	<p>❑ 강의에서 전개되는 한 가족의 이야기를 설명한다.</p> <p>☞ “박용성과 박룡철 씨는 형제입니다. 이들은 6·25전쟁으로 인한 남북한 분단으로 근 60년을 서로 헤어져 살다가 박룡철 씨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오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p>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	---------	---------	----------

도입 (6장) 20분	6	등장인물 소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용성 할아버지는 한국에 막 정착을 시작한 동생 룡철 할아버지를 데리고 나가 한국사회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도 용성 할아버지를 따라서 서울 시내 구경을 하면서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같이 한번 봅시다.”라고 하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킨다.
전개 (15장) 60분	7	한국사회의 다양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왼쪽 사진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라는 질문을 하여 시선을 집중시킨다. 왼쪽 사진은 남대문시장의 모습이다. ❑ 두 번째 오른쪽 사진은 한 건물에 있는 다양한 업종, 다양한 간판의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안산 시내의 한 건물 모습이다. 각각을 가리키며 “이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고 알아맞히게 한다. 병원, 서점, 안경점, 커피숍, 음식점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한 건물 내에 있음을 설명해준다. ❑ 남대문 시장에서 파는 다양한 물건, 간판의 외국어, 한 건물 내에 있는 다양한 업종의 가게들, 간판모양과 색깔 등 모든 것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 이 두 사진 이외에도, 다양한 수업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의 옷이나 소지품의 색깔 혹은 모양을 서로 살펴서, 다양함을 깨닫게 할 수 있다. 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실린 신문기사 내용을 찾아 보여주며 한국사회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8	생각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는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달랐는지, 그들을 위한 시설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 각 질문들을 강사가 읽어주고, 생각해보도록 한다. 시간을 충분히 준다. ❑ 답을 판서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생각해보게 한다. ❑ 나온 답들을 정리하고, 강사는 자신이 정리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긴다.

전개 (15장) 60분	9	한국의 다양성: 세대	<p>❑ 이 사진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p> <p>❑ 노인들이 서로 음악에 맞추어 춤추는 모습, 젊은이들이 춤추는 모습이다. 노인과 젊은이의 취미, 문화생활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놀이문화뿐 아니라도 세대 간의 차이는 많은데, 부모나 자녀와 의견의 차이로 갈등을 경험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p>
	10	한국의 다양성: 빈부	<p>❑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시작한다.</p> <p>❑ 한국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어, 고급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주택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판자촌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한다. “북한은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던져, 생각해보게 한다.</p>
	11	한국의 다양성: 종교	<p>❑ “이 사진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요?”라고 질문을 던진다.</p> <p>❑ 각각 사진들을 가리키며 어떤 종교를 뜻하는지 묻고 답해본다.</p> <p>❑ 왼쪽 상단은 불교, 오른쪽 상단은 천주교, 왼쪽 하단은 기독교, 오른쪽 하단은 이슬람교를 뜻한다.</p> <p>❑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설명한다. 또한 “북한은 어떤가요?”라고 질문을 던져 생각해보게 할 수도 있다.</p> <p>❑ 다음 슬라이드로 이동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까지 살펴본 세대, 빈부, 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이들을 위해 사회가 어떤 제도나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라고 다음의 학습내용을 소개한다.</p>
	12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	<p>❑ 사진을 하나씩 가리키며 어떤 사진인지를 추측해볼 수 있게 한다. 누구를 위해, 그리고 왜 이러한 제도나 장치들을 사회가 만들어놓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발문하며 설명한다.</p>

전개 (15장) 60분	12	다양한 사람들과 그들을 위한 사회적 장치	<p>❑ 왼쪽 상단은 지하철의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좌석, 오른쪽 상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인사동의 거리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거리간판, 왼쪽 하단은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오른쪽 하단은 남자 화장실에 여성 청소부가 청소중이라는 안내간판이다. 이 그림을 가지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성 청소부가 청소할 때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남성을 배려하여 만든 설명문임을 알려준다. 아래에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가 되어 있음을 설명한다.</p>
	13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내 이웃 (1)	<p>❑ 이 사진은 수원외 한 건물의 간판을 찍은 것이다. ‘푸드랜드’는 외래어인데, 푸드는 음식이라는 뜻, 랜드는 그것이 모여있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이곳은 중국, 몽골, 러시아 등의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임을 설명한다.</p> <p>❑ 박용성 할아버지가 설명해주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슬라이드의 글을 읽으며, ‘다문화’라는 용어를 기억하도록 한다.</p> <p>❑ 한국사회에서 외국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지, 어떤 국적의 사람들을 어디서 보았는지 물어본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 속에서 ‘다문화’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한다.</p>
	14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내 이웃 (2)	<p>❑ 사진을 설명해준다.</p> <p>☞ 두 사진은 여러 국적의 외국사람들이 살고 있는 안산 원곡동의 다문화 마을임을 보여준다. 안산이라는 지역은 공장들이 많이 있고, 그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온 외국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안산의 원곡동에는 많은 외국인노동자들과 국제결혼 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먹을 수 있고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p> <p>❑ 왼쪽 사진은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이다. “이런 장면을 혹시 중국에서 본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여 호기심을 유발시킨다.</p>

전개 (15장) 60분	15	다양한 문화를 지닌 내 이웃 (3)	<p>❖ 왼쪽 사진은 역시 안산 원곡동의 이슬람 교회에서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외국사람들이 예배를 보는 모습이다.</p> <p>❖ 오른쪽 사진은 한국에 사는 인도네시아 사람이 이슬람교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이다. 재미있는 것은 신부 측 부모가 한국에서 거행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결혼식 중 신부가 스마트폰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모와 연결하여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p> <p>☞ 이런 사진을 통해서 한국사회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음을 설명한다.</p>
	16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자	<p>❖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학습내용을 이끈다. “이와 같이 한국에는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있고, 국제결혼하여 한국인 남편이나 아내를 따라 한국에 와서 사는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들이 한국에 왔을까요?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시다.”</p>
	17	다문화 가족 현황	<p>❖ 그래프를 설명한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모두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p> <p>여성가족부의 2013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2009년에 199,393명, 2010년에 221,548명, 2011년에는 252,764명, 2012년에는 267,727명, 2013년에는 281,2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p>
	18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온 역사적 배경	<p>❖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p> <p>☞ 1960~1970년대까지 한국은 인력송출국이였다. 이 기간에는 한국사람들이 외국에 나가 일하면서 외화벌이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는 한국경제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약 2만 명의 한국 광부와 간호사가 서독으로 취업을 위해 이주했고, 중동지역에 건설업이 진출하였다.</p> <p>☞ 1980년대 이후 한국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순기능업무를 기피하고, 그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외국 국적의 근로자, 동포에게 취업활동을 허용하여 많이 외국 국적의 근로자들이 유입되었고, 한국은 이제 외국인력 수입국으로 변화하였다.</p>

전개 (15장) 60분	19	결혼이주자가 한국에 온 배경	❖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1990년대부터 한국 내에서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결혼이주자가 등장했다. 한국에서는 편중된 성비로 인해 미혼남성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생활을 선호하여 한국의 농촌에는 주로 고령의 인구집단만 남아있게 되었다. 젊은 한국여성들이 농촌 거주를 기피하면서 농촌에 남아 있는 미혼남성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이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국제결혼이 성행하게 되었다.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변화하게 되면서, 결혼이주자들의 한국 유입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20	나와 다른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1)	❖ 두 할아버지의 대화를 읽는다. ❖ 외국인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게는 한국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우리와 다른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21	나와 다른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 (2)	❖ 옆에 앉은 사람과 짝을 지어주고, 옆에 앉은 사람이 없으면 짝을 만들어 준다. ❖ 10~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남북한사람의 다른 점 다섯 가지를 짝과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남북한사람들의 성격, 말투, 남녀역할 등 다양한 세부영역에서 남북한사람들의 차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의식주와 관련하여, 남북한의 특징적 차이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사람들은 종종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북한사람들은 음식을 만들 때 양념을 많이 쓰지 않는다. 남한 음식이 더 달다. 배추나 무 같은 채소는 북한 음식이 더 고소하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남북한의 차이점 때문에 겪은 일들을 기억하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짝과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이야기한 내용을 발표한다. ☞ 예) 여성이 담배피우는 것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정리 (1장) 10분	22	정리하기	<p>☑ 하나씩 토박토박 읽으면서 강조한다.</p> <p>☞ 특히,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설명한다.</p>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동포사랑』 : 간행물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및 적응을 돕는 정보들로 구성, 한국사회 이해에 도움 ○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 <http://global.iansan.net/> :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제도 이해에 도움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참조 (국내외 사례 참조) ○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식채널e - 사람들이 왔다.” :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관련 이해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주제 4. 민주적 의사소통 _ 사회생활

- 학습 목표
- 민주적 의사소통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해 본다.
 - 직장 내 갈등상황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이웃과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이 강의는 통일 후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주민의 통합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자칫 혼계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남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또는 강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간중간 직접 참여하고 연습해본다. 발표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가급적 긍정적 평가와 답변에 대한 감사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습자에게는 필기구와 A4용지가 1~2장 필요하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4장) 20분	1	전체 프로그램 표지	
	2	전체 구성 소개	<p>☑ 민주적 의사소통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통일의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정치적, 군사적, 영토의 통일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해 학습하는 것임을 설명한다.</p>
	3	제목	
	4	경험 나누기	<p>☑ 가계도를 보여주고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한다.</p> <p>☞ 이 가족은 가상의 가족임을 설명하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제에 가깝게 꾸민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다.</p> <p>☑ 이번 강의의 주된 출연자는 박충석 씨로, 본격적인 가족 설명에 앞서 “박충석 씨가 1972년생이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라고 질문을 던져본다.</p>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p>도입 (4장)</p> <p>20분</p>	4	<p>경험 나누기</p>	<p>☞ 정답은 2014년 기준으로 43세다. 이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다.</p> <p>☑ 박용철 씨의 아들인 박충석 씨는 아내 임지에 씨와 아들 박영호와 함께 탈북을 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박용철 씨의 친형인 박용성 씨는 6·25전쟁 때 헤어졌다가 탈북 후 남한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배경 설명을 한다.</p> <p>☑ 마지막으로 박충석 씨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이따 확인해 보자고 하면서 슬라이드를 넘긴다.</p>
<p>전개 (17장)</p> <p>80분</p>	5	<p>어떤 상황일까요?</p>	<p>☑ 사진을 보여준 후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반응이 있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와 같이 대응한다.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2~3명 정도의 반응을 더 들어본다. 만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간단히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반응을 이끌어 낸다. 가령 “여성이 남성한테 친절하게 말을 거는 것처럼 보이나요?”, “남성의 표정이 밝아 보이나요?”, “사진 속의 공간이 어디로 보이나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점차 “그럼, 두 사람 중 누가 직장 상사로 보이나요?”, “만일 내가 저 남성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와 같이 질문을 확장시켜 본다.</p> <p>☞ 이때, 혹시 남녀차별적 발언(남자가 머저리 같다, 저런 여자한테 밀리면 안 된다 등등)이 나오면 가볍지만 단호하게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과연 상황이 좋아질까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반응이 꽤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게 반응했다가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와 같이 설명하고 마무리한다.</p>
	6	<p>직장동료와의 대화, 어떤 결과?</p>	<p>☑ 슬라이드의 내용을 간결하게 읽고 설명해 준다.(또는 학습자들이 직접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1분 준다.)</p> <p>☑ 슬라이드 상황을 파악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p>전개 (17장)</p> <p>80분</p>	<p>7</p> <p>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p>	<p>☑️ 방금 전 슬라이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택배일을 시작하게 된 박충석 씨. 집하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동료에게 물어봤다가 면박을 당한다.)</p> <p>여기서 잠깐!</p> <p>“집하처리가 뭘까요?”라는 질문을 던진 후에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해 준다.</p> <p>☞ 집하(集荷)란 전국 각지에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한 곳에 모인다는 뜻으로 집하처리란 지금 전국에서 화물이 모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모인 물건들을 다시 배달해야 할 곳에 맞게 분배해서 각 택배차량에 싣고 배달을 나가는 겁니다.</p> <p>☑️ 박충석 씨의 상황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한 후에는 다시 그때 그때 클릭을 해서 “의견 대립 등으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일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를 읽고, 잠시 틈을 들인 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p>☞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7번은 가볍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학습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다. 자칫 여기서부터 의견을 듣다가는 시간 내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이나 의견이 나오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넘어가도록 한다.</p>	
	<p>8</p> <p>직장동료는 왜 그랬을까요?</p>		<p>☑️ 여기서부터 학습자의 의견을 적극 이끌어낸다. “자, 직장동료는 왜 그랬을까요?”라고 질문하고 반응을 들어본다.</p> <p>☞ 반응이 있다면 상대방이 말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런 의미죠?”라며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있음을 표시한다. 즉,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사람이 질문을 하니깐 짜증이 났겠죠?”라고 응답했다면, “네, 잘 모르는 사람이 바빠 죽겠는데 질문을 하니깐 짜증이 났을 것이다. 이 말이죠?”와 같이 반응한다.</p>

전개 (17장) 80분	8	직장동료는 왜 그랬을까요?	<p>❑ 직장동료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 전에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를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서, 안다면 곧장 질문으로, 잘 모르는 반응 같으면 역지사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다음 질문을 한다. “여러분이 직장동료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p> <p>❑ 반응이 있다면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반응이 없다면(저라면 “안 가르쳐주지~!”하면서 놀렸을 거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반응을 기다려본다.)</p>
	9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p>❑ 이번엔 박충석 씨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직장동료가 어떻게 했을지를 학습자에게 물어본다.</p> <p>❑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다면 몇 가지 답변 사례를 설명해 준다.</p> <p>❑ “집하처리는 전국에서 몰려든 물건들을 배달 갈 지역에 맞게 재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맡은 지역으로 갈 물건들을 분류해서 옮기는 게 집하처리예요.” 또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모르면 일할 때마다 헛갈려요. 이런 용어에 대한 것은 사무실에 가면 설명 책자가 있으니 그걸 하나 달라고 하세요.”</p>
	10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p>❑ 이 페이지는 전체 강의 시간을 조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앞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다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넘어가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반응을 이끌어내면서 조율할 수 있다.</p> <p>❑ 반응을 이끌어낼 때, 처음에는 본인의 사례보다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사례’,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요청해 보고,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더 좋습니다.” 정도로 유도하면 된다.</p> <p>❑ 반응이 없으면(실제로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각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은 누구나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전개 (17장)
80분

11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

❖ “여러분들이 앞으로 직장동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 상황이 생기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걸 일명 ‘I(아이) 메시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I’는 나를 뜻하고, ‘메시지’란 어떤 사실, 상황을 알리기 위한 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할 때, ‘너’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I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한다.

❖ 슬라이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한 후에 “예시를 볼까요? 직장동료가 약속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나 봅니다. 이러면 정말 화나죠? 이것을 좀 더 나누어서 볼까요? ① 상대방의 행동(상황)은 무엇이었나요?(학습자들이 답변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약속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연락이 안 되는군요. ② 자, 그렇다면 이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은 어떻습니까?(학습자들이 답변을 하면) 그렇죠. 안 오니까 일단 기다리게 되고,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계속 연락하게 되겠죠? ③ 그래서 생겨난 감정은 될까요?(역시 학습자의 반응을 기다린 후에) 그렇습니다. 화도 나고, 걱정도 되고, 초조해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라며 슬라이드 하단의 내용을 읽어준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해 주고, 그럼에도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너 왜 늦었어?”, “넌 어떻게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라고 ‘너’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너’를 중심으로 말을 할 경우 자칫하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 ‘탓’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더 ‘I 메시지’ 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p>전개 (17장)</p> <p>80분</p>	<p>12</p> <p>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p>	<p>☑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p> <p>☑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예시로 답변을 달아 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음.’이라고 말하며 클릭한다. 그리고 나서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도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본다.</p> <p>☑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에 “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함.’으로 예시 답변을 달아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클릭한다.</p> <p>☑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슬라이드 하단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클릭한다.</p> <p>☑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p> <p>☞ 전 슬라이드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다면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했던 상황을 ‘I 메시지’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 만일 전 슬라이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다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겪었던 사례를 ‘I 메시지’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여기서 잠깐!</p> <p>학습자 인원이 짝수라면 2인 1조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쪽이 먼저 자신의 사례를 상대방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p> </div>
	<p>13</p> <p>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p>	<p>☑ 시간은 3분을 준다. 학습자들이 필기구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고, 그 다음 상대방의 행동,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을 구분해 적어보도록 한다.</p> <p>☞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는 5분을 준다. 각각 2분씩 이야기하고 정리하는데 1분!</p>

전개 (17장) 80분	13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의 진행 상황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1분 정도 시간을 더 준다. ❑ 어느 정도 작성이 된 후에는 학습자 중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강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대방의 행동, 나에게 미친 영향, 생겨난 감정에 대해 천천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청을 당부한다.
	14	어떤 상황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시 학습자들의 상태를 살핀 후 가볍게 앉은 자리에서 몸을 풀 수 있도록 한다.(목 돌리기, 간단한 스트레칭) ❑ 슬라이드 5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여준 후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이 있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와 같이 대응한다.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2~3명 정도의 반응을 더 들어본다. 만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간단히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반응을 이끌어낸다. 가령 “여성이 무슨 초록색 막대를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보이나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점차 “평상시 저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춤을 추는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의견을 주세요.”와 같이 의견을 들어본다. ❑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은 후, 이 사진은 층간 소음에 대한 것으로 윗집에서 하도 쿵쿵거리니까, 아랫집에서 항의의 뜻으로 막대를 가지고 쿵쿵 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한다. 최근 뉴스를 보면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도 많고 심지어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 또한 이웃 간의 불편함, 갈등에 대해 민주적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15	이웃과의 대화, 어떤 결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내용을 간결하게 읽고 설명해 준다.(또는 학습자들이 직접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1분 준다.) ❑ 슬라이드 상황을 파악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16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 방금 전 슬라이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 모처럼 고향친구를 만났으니 얼마나 즐겁고 반가웠을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런데 아파트라 그런지 이웃의 향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말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p> <p>❑ 박충석 씨의 상황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한 후에는 다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두 번이나 찾아온 이웃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를 읽어주고, 잠시 뜸을 들인 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전개 (17장) 80분	17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p>❑ 이번에는 박충석 씨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이웃은 어떻게 했을지를 학습자에게 물어본다.</p> <p>❑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다면 몇 가지 답변 사례를 설명해 준다.</p> <p>❑ “그래도 그렇지 이거 너무 하잖아요!” 또는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등등</p>
	18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p>❑ 이 페이지 역시 전체 강의 시간을 조율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즉, 앞의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지났다면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학습자의 반응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넘어가야 할 것이고, 반대로 시간 여유가 있다면 시간을 할애하여 최대한 반응을 이끌어낸다.</p> <p>❑ 반응을 이끌어낼 때, 처음에는 본인의 사례보다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사례’,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요청해 보고,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더 좋습니다.” 정도로 유도하면 된다.</p> <p>❑ 반응이 없으면(실제로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각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은 누구나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19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	<p>❖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웃과 살면서 갈등상황이 생기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걸 ‘비폭력대화’의 한 방법입니다. ‘비폭력대화’란 사람들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비폭력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잖아요?”라고 설명하면서 ‘비폭력대화’의 의미를 전달한다.</p> <p>❖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비폭력대화의 구조가 어떤지 설명한다. 먼저 있는 그대로 듣기,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견 제안을 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p>
전개 (17장) 80분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	<p>❖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p> <p>❖ 있는 그대로 듣기에 대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너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클릭한다. 있는 그대로 들은 후에 드는 느낌에 대해서도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본다.</p> <p>❖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은 후에 “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아랫집 사람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잠을 못 자겠다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 답변을 달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클릭한다.</p> <p>❖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시끄러웠는지 몰랐거든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다음 구체적인 내용 또는 의문형으로 말하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p> <p>❖ 어느 정도 의견을 들은 후에 예시 답변을 클릭해 보여준다. 그리고 아랫집 사람이 시끄럽다며 항의하러 올라왔을 때의 상황을 정리해서 읽어본다.</p> <p>☞ 전 슬라이드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다면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했던 상황을 ‘비폭력</p>

전개 (17장)	20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	<p>대화'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p>☞ 만일 전 슬라이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다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겪었던 사례를 ‘비폭력대화’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p>여기서 잠깐!</p> <p>학습자 인원이 짝수라면 2인 1조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쪽이 먼저 자신의 사례를 상대방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p>
	80분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	<p>☑ 시간은 5분을 준다. 학습자들이 필기구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고, 그 다음 상대방의 행동,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을 구분해 적어보도록 한다.</p> <p>☞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는 5분을 준다. 각각 2분씩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데 1분!</p> <p>☑ 학습자들의 진행 상황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1분 정도 시간을 더 준다.</p> <p>☑ 어느 정도 작성이 된 후에는 학습자 중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강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대방의 행동, 나에게 미친 영향, 생겨난 감정에 대해 천천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청을 당부한다.</p>
	정리 (1장) 5분	정리하기	<p>☑ 직장과 이웃과의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해 다섯 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하나씩 설명한다.</p> <p>정리시간 조정은 학습자에게 간단한 소감을 듣는 것으로 한다.</p> <p>☞ 인원이 많다면 몇몇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하고, 인원이 20명 이내의 경우 한 문장으로 소감을 말해달라고 한다. 가령,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처럼 앞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말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와 같이</p>
참고 자료	<p>○ 마셜 로젠버그 지음, 캐서린 한 역. 『비폭력대화』. 서울: 한국 NVC센터, 2011.</p> <p>○ 한국 NVC센터. <www.krncv.org>.</p>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주제 5. 민주적 의사소통 _ 가정생활

- 학습 목표
- 가부장적 문화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적 태도를 지향한다.
 -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이 강의는 통일 후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주민의 통합과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된 것이다.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자칫 훈계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남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또는 강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중간중간 직접 참여하고 연습해본다. 발표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때, 가급적 긍정적 평가와 답변에 대한 감사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습자에게는 필기구와 A4용지가 1~2장 필요하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4장) 20분	1	전체 프로그램 표지	
	2	전체 구성 소개	<p>❑ 민주적 의사소통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됨과 동시에, 통일의 과정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잘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통일은 정치적, 군사적, 영토의 통일 못지않게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는 것임을 설명한다.</p>
	3	제목	
	4	한 가족의 이야기	<p>❑ 가계도를 보여주고 주인공에 대한 설명을 한다.</p> <p>☞ 이 가족은 가상의 가족임을 설명하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실제에 가깝게 꾸민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한다.</p> <p>❑ 이번 강의의 주된 출연자는 박충석 씨로, 본격적인 가족 설명에 앞서 “박충석 씨의 아들 박영호는 2000년생입니다. 그렇다면 박충석 씨의 아내 임지에 씨가 몇 살 때 박영호를 낳았을까요? 그리고 자기 나이에 맞게 학교에 들어간 박영호는 몇 학년일까요?”라고 질문을 던져본다.</p>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4장) 20분	4	한 가족의 이야기	<p>☞ 정답은 26세이다. 이 질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 간단히 점검해 볼 수 있다.</p> <p>☑ 박용철 씨의 아들인 박충석 씨는 아내 임지에 씨와 아들 박영호와 함께 탈북을 한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박용철 씨의 친형인 박용성 씨는 6·25전쟁 때 헤어졌다가 탈북 후 남한에서 재회를 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배경 설명을 한다.</p> <p>☑ 마지막으로 박충석 씨가 가정생활에서도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 이따 확인해보자고 하면서 슬라이드를 넘긴다.</p>
전개 (19장) 80분	5	어떤 상황일까요?	<p>☑ 사진을 보여준 후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반응이 있으면, 내용과 상관없이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와 같이 대응한다. 이 상황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달리 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2~3명 정도의 반응을 더 들어본다. 만일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간단히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반응을 이끌어낸다. 가령 “주방에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성의 표정이 어떤가요?”, “오른쪽 볼과 눈가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본다.</p> <p>☑ 이때, 혹시 남녀차별적, 가부장적 발언(맞을 짓을 했겠지, 부부생활 중에 저럴 수도 있다 등등)이 나오면 가법지만 단호하게 “글쎄요, 요즘도 그런 것들이 통할까요?”, “반대로 입장이 바뀌면 어떤 것 같습니까?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건 옳은 판단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유리하게 생각 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와 같이 설명하고 마무리한다.</p>
	6	부부 대화, 어떤 결과가?	<p>☑ 슬라이드의 내용을 간결하게 읽고 설명한다. 또는 학습자들이 직접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1분 준다.</p> <p>☑ 슬라이드 상황을 파악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7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 방금 전 슬라이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한다.</p> <p>☞ 직장일을 마치고 귀가해 피곤한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한 아내, 나중에 하겠다고 하자 문 상태라도</p>

전개 (19장) 80분	7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p>봐 달라는 아내, 화가 난 남편은 집안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따지고 이에 아내도 다른 집 남편들과 비교하면서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p> <p>☑ 슬라이드의 상황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한 후에는 다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남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내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읽어주고, 잠시 틈을 들인 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여기서 남녀 학습자 간에 입장차가 심하게 나타나거나 서로 논쟁을 하는 경우에는 “토론은 지와 하시죠?”라고 말하며 일단 학습자 간의 논쟁은 중단시킨다. 슬라이드 7번은 가볍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학습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아니다. 자칫 여기서부터 의견을 듣다가는 시간 내 진도를 못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질문이나 의견이 나오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하면서 넘어가도록 한다.</p>
	8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p>☑ 남편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달리 말했다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남성 학습자들이 먼저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대한 여성 학습자들의 반응도 살펴본다. 즉, 남성들이 이야기하는 아내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를 바라보는 여성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p> <p>☑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다면 이번엔 여성 학습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9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	<p>☑ 아내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달리 말했다면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여성 학습자들이 먼저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에 대한 남성 학습자들의 반응도 살펴본다. 즉,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남편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를 바라보는 남성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p> <p>☑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다면 이번엔 남성 학습자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p>
	10	폭력 사용하지 않기	<p>☑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의견 대립이 말싸움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 가정폭력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한다.</p>

	10	폭력 사용하지 않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에 대해 설명할 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거부감 내지 불편함이 들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실제로 2012년 통계청에 의하면 11만 4천 건의 이혼 중 약 50%가 가정폭력이 원인이었다고 하며,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의 약 50%는 성인이 된 후 역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을 설명한다. ❑ 따라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와 같은 말은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가 아닌 사생활의 영역으로 보려는 잘못된 인식임을 설명한다. 즉, 가정폭력은 그 정도나 돌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임을 강조해 준다.
전개 (19장)	11	가정폭력의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은 단순히 힘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때리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 대표적인 가정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 각각의 유형의 대표적인 것들을 슬라이드와 함께 설명한다.
	80분	12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p>전개 (19장)</p>	<p>13</p>	<p>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p>	<p>☑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걸 일명 ‘I (아이)메시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I’는 나를 뜻하고, ‘메시지’란 어떤 사실, 상황을 알리기 위한 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화를 할 때, ‘너’를 중심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설명하면서 ‘I 메시지’의 의미를 전달한다.</p> <p>☞ 만일 4차시 강의를 들은 분이면 ‘I 메시지’의 개념을 상기시키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넘어간다.</p> <p>☑ 슬라이드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한 후에 “예시를 볼까요?” 아내가 생일을 기억하고 미역국과 생일상을 준비해줬다. 뜻밖의 생일상에 너무 놀랐다.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이것을 ‘I 메시지’로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한다.</p> <p>☑ 마지막으로 “그럼 한 번 더 ‘I 메시지’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p>80분</p>	<p>14</p>	<p>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p>	<p>☑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p> <p>☑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이렇게 예시로 답변을 달아 보았습니다. ‘괜히 식사를 준비했나, 후회가 됨.’이라고 말하며 클릭한다. 그리고 나서 생겨난 감정에 대해서도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본다.</p> <p>☑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에 “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 한 통 없어 서운함.’으로 예시 답변을 달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클릭한다.</p> <p>☑ “정리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슬라이드 하단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클릭해 준다.</p> <p>☑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p> <p>☞ 전 슬라이드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다면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했던 상황을 ‘I 메시지’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p>

	14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	<p>☞ 만일 전 슬라이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다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겪었던 사례를 ‘I 메시지’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p>여기서 잠깐!</p> <p>학습자 인원이 짝수라면 2인 1조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쪽이 먼저 자신의 사례를 상대방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p>
전개 (19장) 80분	15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	<p>☑ 시간은 3분을 드린다. 학습자들이 필기구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고, 그 다음 그것을 상대방의 행동,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을 구분해 적어보도록 한다.</p> <p>☞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는 5분을 준다. 각각 2분씩 이야기하고 정리하는 데 1분!</p> <p>☑ 학습자들의 진행 상황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1분 정도 시간을 더 준다.</p> <p>☑ 어느 정도 작성이 된 후에는 학습자 중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강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대방의 행동, 나에게 미친 영향, 생겨난 감정에 대해 천천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분들의 경청을 당부한다.</p>
	16	어떤 상황일까요?	<p>☑ 잠시 학습자들의 상태를 살핀 후 가볍게 앉은 자리에서 몸을 풀 수 있도록 한다.(목 돌리기, 간단한 스트레칭)</p> <p>☑ 슬라이드 5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보여준 후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상황으로 보이나요?” 잠시 기다렸다가 간단히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 줌으로써 반응을 이끌어 낸다. 가령 “아이가 두 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서 점차 “보통 저런 행동은 어떤 상황에서 하게 될까요?”와 같이 의견을 들어본다.</p> <p>☑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은 후, 이 사진은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으로 자녀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p>

전개 (19장) 80분	16	어떤 상황일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 자녀들과의 대화가 잘 되는 편인가요?”라고 물어보면서 이번에는 자녀와의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17	자녀와의 대화, 어떤 결과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라이드의 내용을 간결하게 읽고 설명한다. 또는 학습자들이 직접 눈으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1분 준다. ☑ 슬라이드 상황을 파악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18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금 전 슬라이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한다. 말없이 자기 방으로 곧장 들어가는 자녀에게 말을 걸어 본 박충석 씨, 그러나 아이는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순간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한 박충석 씨는 문을 쿵쾅 두드린다. 이에 자녀는 오히려 할 말 없다며 짜증난다고 말하는데... ☑ 박충석 씨의 상황에 대한 요약 설명을 한 후에는 다시 그때그때 클릭을 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는 왜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를 읽어 주고, 잠시 틈을 들인 후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19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엔 박충석씨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자녀는 어떻게 했을지를 학습자에게 물어본다. ☑ 학습자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반응이 없다면 청소년기, 사춘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 사실 자녀들과의 의사소통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청소년기, 사춘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다. 가령,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바람과 파도와 같이 자녀들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소용돌이치는 시기여서 이유 없는 반항, 잦은 짜증, 심한 감정의 기복 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 더불어 강사가 알고 있는 사례를 설명해 주면 더욱 효과적이다.

전개 (19장)	20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	<p>❑ 이 페이지에서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은 자녀가 불편해했던 사례를 잘 돌아보게 하는 것이다. 즉, 부모로서 학습자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성찰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시간을 안배해 주고, 자녀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답답하거나 힘들고 불편할지에 대해 학습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다.</p> <p>❑ 더불어 반응을 이끌어 낼 때, 처음에는 본인의 사례보다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사례’, ‘들어본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요청해 보고, “물론 여러분의 이야기라면 더 좋습니다.” 정도로 유도한다.</p> <p>❑ 반응이 없으면(실제로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각자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은 누구나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p>
	80분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	<p>❑ “여러분들이 자녀와 지내면서 갈등상황이 생기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걸 ‘비폭력대화’의 한 방법입니다. ‘비폭력대화’란 사람들이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할 때 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말하는 것을 비폭력대화라고 부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고 하잖아요?”라고 설명하면서 ‘비폭력대화’의 의미를 전달한다.</p> <p>☞ 이미 4강을 들은 경우라면 ‘비폭력대화’의 개념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대체한다.</p> <p>❑ 슬라이드 화면을 보면서 비폭력대화의 구조가 어떤지 설명한다. 먼저 있는 그대로 듣기, 그리고 ‘자신의 느낌을 전달’하고,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설명’하고, 그에 따른 의견, 제안을 하는 것임을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 슬라이드의 예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p>

전개 (19장)

80분

22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2)

- ❑ 슬라이드의 내용을 보면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이끌어낸다.
- ❑ 있는 그대로 듣기에 대해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에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니”라고 말하며 클릭한다. 있는 그대로 본 것을 말한 후에 드는 느낌에 대해서도 학습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 ❑ 역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본 후에 “네, 여러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걱정이 된다.’로 예시 답변을 달아 보았습니다.”라고 말하며 클릭한다.
- ❑ 왜 그렇게 느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는 “게임중독에 빠질 것 같아서.”라고 말하며 다음 구체적인 내용 또는 의문형으로 말하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 ❑ 여기서는 의문형으로 한 예시 답변을 보여준다.

- ☞ 전 슬라이드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한 것이 있다면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답변했던 상황을 ‘비폭력대화’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만일 전 슬라이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없다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겪었던 사례를 ‘비폭력대화’ 방법으로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간다.

여기서 잠깐!

학습자 인원이 짝수라면 2인 1조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쪽이 먼저 자신의 사례를 상대방에게 들려주면 그것을 상대방이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23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

- ❑ 시간은 5분을 준다. 학습자들이 필기구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보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적고, 상대방의 행동, 그것이 나에게 미친 영향,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을 구분해 적어보도록 한다.
- ☞ 2인 1조로 하는 경우에는 5분을 준다. 각각 2분씩 이야기하고 정리하는데 1분!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전개 (19장) 80분	23	앞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들의 진행 상황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1분 정도 시간을 더 준다. ❑ 어느 정도 작성이 된 후에는 학습자 중에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강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상대방의 행동, 나에게 미친 영향, 생겨난 감정에 대해 천천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청을 당부한다.
정리 (1장) 5분	24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생활에서의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해 5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슬라이드 화면을 통해 하나씩 설명한다. ❑ 정리시간 조정은 학습자에게 간단한 소감을 듣는 것으로 한다. 인원이 많다면 몇몇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하고, 인원이 20명 이내의 경우 한 문장으로 소감을 말해달라고 한다. 가령, “이제는 싸우면서 정든다는 식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와 같이.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셜 로젠버그 지음, 캐서린 한 역. 『비폭력대화』. 서울: 한국 NVC센터, 2011. ○ 한국 NVC센터. <www.krnvc.org>.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통일교육

주제 6.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 학습 목표
-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한다.
 -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을 살펴본다.
 -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교수 학습

강의식으로 진행하지만,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각 슬라이드별로 적절한 발문을 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식을 주입하거나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학습 단계	슬라이드 번호	슬라이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 (5장) 20분	1	전체 프로그램 표지	
	2	전체 구성 소개	<p>☑ 전체적인 강의구성을 설명하고, 오늘의 강의주제를 설명한다.</p> <p>☞ “이 시간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요? 통일은 왜 필요합니까? 통일을 위해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통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내용입니다.”</p>
	3	제목	
	4	생각해보기	
	5	등장인물 소개	<p>☑ 박용성, 박룡철 씨 가족에 대해 소개한다.</p> <p>☞ “박용성 할아버지와 박룡철 할아버지 형제는 6·25전쟁 후 남북분단으로 인해 헤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2000년 룡철 할아버지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에 정착하면서 형인 박용성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p>

전개 (16장) 60분	6	통일의 의미 (1)	<p>❑ 박용성, 박용철 씨가 임진각에서 북한땅을 향해 절을 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설명한다.</p> <p>❑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p> <p>☞ “한국에서 만난 두 할아버지 가족은 임진각에 가서 친지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을 향해 절을 하고 이야기 나눕니다. 여러분은 혹시 임진각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명절 때 북쪽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많이 임진각에 가서 성묘하고 절을 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족들과 나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향 그리우시죠?”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간다.</p>
	7	통일의 의미 (2)	<p>❑ 슬라이드 6을 보여준 상태에서, 슬라이드 7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한다.</p> <p>☞ “여러분은 통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후 답을 들어본다. 여러가지 답을 판서해서 서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p> <p>❑ 충분히 생각해서 답을 얻은 후, 슬라이드 7을 보여주며 간단하게 글을 읽는다.</p>
	8	통일의 의미 (3)	<p>❑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라고 질문한다.</p> <p>❑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통일 이후의 변화전망을 보여주며, 천천히 읽어서 설명한다.</p> <p>❑ 통일 이후의 변화전망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동의하시나요?” 혹은 “아닌가요? 그럼 어떤 것 같은가요?”라고 질문하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다.</p>
	9	통일의 의미 (4)	<p>❑ 아랫부분에 적혀 있는 통일의 의미를 읽고, 다음 동그라미 안의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로 세분화시켜서 읽는다.</p> <p>❑ “여러분은 통일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고 답을 듣는다.</p>

전개 (16장) 60분	10	통일의 필요성 (1)	<p>❑ 실제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남북한사람들 간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p> <p>❑ 북한이탈주민 중 86.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반해, 남한주민 중에는 57.1%만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북한이탈주민과 전체 국민에 대한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설명한다. 남한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을 알려준다. 남한주민들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치·사회적 후유증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인식시킨다.</p>
	11	통일의 필요성 (2)	<p>❑ 한국사람 중에는 북에 고향을 두고 있지 않은 사람도 많고,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그다지 절실한 문제로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한다.</p>
	12	통일의 필요성 (3)	<p>❑ 실제로 통일이 되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많을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국 청소년이나 청년층은 통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통일이 될 경우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과 책임, 통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예측하며 통일에 대한 회의감과 공포감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통일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한국 사람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통일이 왜 필요한지를 다음의 네 가지,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한다고 소개한다.</p>
	13	통일의 필요성 (정치·외교적 차원)	<p>❑ 통일의 필요성을 먼저 “정치·외교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라고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p> <p>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하여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뿐 아니라 내부 이념적 대립을 종결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p>

전개 (16장) 60분	13	통일의 필요성 (정치·외교적 차원)	될 것이다. 통일로 말미암은 안보위협은 해소는 국가신용등급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통일은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에 이어지는 세계경제의 중심지로서,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14	통일의 필요성 (경제적 차원)	☑ 경제적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즉, 통일은 일차적으로 국토면적의 확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확대를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통일한국은 해양과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 중국, 시베리아,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즉 통일은 내수시장의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 기업에게는 새로운 성장활동의 개척을, 개인에게는 다양한 직업선택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15	통일의 필요성 (안보적 차원)	☑ 안보적 차원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지불하고 있는 자원과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준다. 이에 따라 군사비 감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 보완적 활용 등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득 확보로 비약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

	16	통일의 필요성 (사회·문화적 차원)	<p>❑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의 해소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한다. 통일은 북한 주민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이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다.</p> <p style="text-align: right;">-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3)</p> </div>
전개 (16장) 60분	17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1)	<p>❑ 시기별 남북한의 통일 노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다.</p> <p>☞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냉전시대로 남북한이 적대적 대결관계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1년 적십자사를 통해 남북한 대화와 교류를 시작했다. 그리고 1972년에는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을 공동 천명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탈냉전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한이 UN회원국으로 동시가입하였다. 2000년과 2007년에는 1,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p>
	18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2)	<p>❑ 남북한이 협의하여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를 시도했는데, 그 예를 사진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왼쪽 상단은 개성공단을 형성하여,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한 모습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공동산업단지로서 남북한 기업 및 외국 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추적 자유경제지대 건설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2000년 남북한의 협의 끝에 2002년 본격적으로 착공하였다. 2) 오른쪽 상단은 올림픽 같은 세계스포츠 무대에 남북한이 공동입장한 모습이다. 남북한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공동입장을 했고, 그 이후 여러 세계스포츠 대회에서 공동입장을 했다.

전개 (16장) 60분	18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2)	<p>3) 왼쪽 하단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모습이다. 첫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시작되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후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대면상봉이 18차례, 화상상봉이 7차례 시행되었다.</p> <p>4) 오른쪽 하단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국제탁구대회에 참가한 모습이다. 1991년 지바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이후, 20년만인 2011년 국제탁구친선전에서 남북한 탁구 단일팀을 구성하여 경기에 임하기도 했다.</p>
	19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3)	<p>☑ 동영상 상영 후 느낀 점을 나누어 본다.</p> <p>☞ “여러분은 ‘통일합니다.’라는 제목의 EBS(한국교육방송) 기관에서 제작한 짧은 동영상을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은 남북한 언어학자들이 만나서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국어사전)을 만드는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동영상에 대해 안내한다.</p>
	20	생각해 봅시다	<p>☑ “통일 후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p> <p>☞ 통일 후 북의 친척, 친구들에게 한국사회를 보여주고, 안내하며 설명해주고 싶다. 북한에 가서 장사하고 싶다. 북한의 부모님 산소에 가고 싶다.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한국에서 정착과 적응을 잘 해나가는 것이 통일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한 출발점임을 인식하도록 한다. 현재 자신의 일상 중에 통일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를 물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p> <p>☑ 시간 여유가 있으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각 종이에 통일 후 만나고 싶은 북한의 친구 한 명을 적도록 한다. 2) 통일 후 그 친구를 만난다면, 그 친구에게 한국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세 가지만 적어본다. 3) 각각 발표해본다.

전개 (16장) 60분	21	통일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p>☑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한다.</p> <p>☞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에 먼저 도착한 북한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 북한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남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통일 후 만나게 될 남북한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북한 상호간의 이질적 문화로 인해 남북한주민의 갈등이 야기 되었을 때 북한 사회에서 태어나 생활했고, 남한 사회를 먼저 겪어본 북한이탈주민인 여러분이 그러한 갈등을 잘 해소하고, 서로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북한의 연결자, 통합의 촉진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한다.</p>
정리 (1장) 10분	22	정리하기	<p>☑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다.</p> <p>☑ 각각 내용을 또박또박 읽으며 강조한다.</p>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문영 외,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1.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3.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연구원, 2013. ○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식채널e - 아주 오래된 소원.” (이산가족 상봉 동영상). ○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식채널e - 통일 합시다.” (겨레말큰사전 동영상).



<활동 자료>

남한과 북한 사회,

비슷한 점

다른 점

이식주

언어

남녀관계

학교교육

잠깐, 생각해 봅시다

: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우리가 배울 교훈

민족 내부적 차원

국제 정치적 차원

잠깐, 생각해봅시다

6·25전쟁에 대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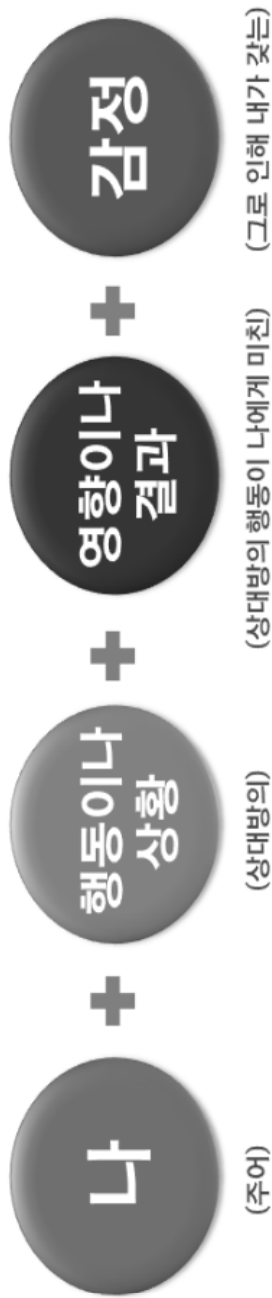
남북한 차이점

남북한 공통점

· 우리 가족이 경험한 분단과 전쟁의 기억은 어떤 것입니까?

· 전쟁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상황)

- 1) 상대방의 행동(상황): _____
- 2) 나에게 미친 영향(결과): _____
- 3) 생겨난 감정: _____

앞으로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요?



_____ 때,

1) 있는 그대로 듣기: _____

2) 느낌을 전달: _____

3) 느낌의 원인 설명: _____

4) 구체적인 문형으로 말하기: _____



